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6호 【루계 제2652호】

주체110(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음력 5월 1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조국과 혁명, 인민들과 후대들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으로 심신을 불태우시며 연 4일간에 걸치는 불철주야의 로고로 전인민적대진군의 새 승리를 강력히 향도할 실천행동지침들을 안겨주시고 사변적인 시책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혁명가,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공연에 출연한 국무위원회연주단 예술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계기마다 가장 정확한 투쟁진로를 명시하고 발전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당중앙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떨쳐갈 천만인민의 투쟁기개가 세차게 맥박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신하고 기백있는 예술공연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사업성과를 지지해주며 불굴의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준 출연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드팀없는 신조로 간직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분투하는 진정한 혁명가가 되며 조선로동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혁신적인 사업성과로 담보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며 당과 인민앞에 매일 매 시각 자기 사업을 총화받는 심정으로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들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하여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드높은 각오와 열정에 충만되여있었다.

본사기자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이 밝힌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온 나라 녀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이 혁명의 전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속에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가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정형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고 녀성동맹이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투쟁에서 혁명적녀성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실천방도들이 토의되였다.

대회에는 각급 녀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서한 《녀성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를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된 직후에 열린 이번 대회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조선녀성운동의 위치와 임무를 재인식하고 녀맹원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가, 견실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조선로동당을 자기 운명의 전부로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조국에 승리와 영광을 더해주기 위해 무한한 헌신의 노력을 다 바쳐가는 우리 녀성들과 녀맹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굴함없는 투쟁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5년간의 투쟁행로에서도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조국과 인민, 후대들앞에 뚜렷한 공적을 아로새긴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기 위한 혁명적진군에서 녀성동맹이 자기의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하고 전체 녀맹원들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에 활력을 더해주고 전인민적총진군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현시기 녀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후대육성과 혁명투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온 나라 녀성들이 강의한 정신력과 애국적헌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더욱 활기있게 추동해나가기를 바라시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기대가 넘치는 서한의 구절구절은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를 장춘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진군방향을 따라 새로운 력동의 시대, 전진의 시대를 펼쳐가는 려정에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된데는 녀성동맹이 전세대 녀성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 당의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라는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가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총결기간 탁월한 령도와 친어버이사랑으로 녀성동맹이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이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총결기간 동맹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과 원인들을 자료적으로 분석총화하였다.

보고자는 각급 녀맹조직들이 당대회결정을 받들고 녀성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총결기간 동맹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그 원인들이 분석총화되였다.

토론자들은 새로운 결심과 각오밑에 분발하여 동맹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으며 결정서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녀성동맹건설원리에 맞게 수정보충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규약개정에 대한 보고에 이어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녀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회는 새로 선거된 제7기 녀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로 대회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위원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내용들과 대표자들의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제의들이 보충반영된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대회는 노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7돐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에서는 경축모임이, 네팔, 우간다에서는 토론회가, 메히꼬, 우크라이나에서는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고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또한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은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는 인민을 스승으로,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총비서의 현명한 령도와 불같은 헌신이 있어 조선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비약하고있는것이다고 격찬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지시여 불패의 혁명적당,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우크라이나리보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이의 당령도업적을 칭송하였다.

한편 쏘련공산당에서도 경축모임이 있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진전시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신 2돐을 기념하여 21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두 나라 인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시회에는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과 문성혁부부장, 박명호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리진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와의 뜻깊은 상봉에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빛내여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으며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조중친선의 불패성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악화되고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환경속에서도 두 당 수뇌분들께서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시며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두터워지고있는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동지적협력, 친선과 단결의 뉴대는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중국인민이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리진군대사는 습근평총서기동지의 조선방문은 새시대 중조관계발전에 있어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중조관계발전의 귀중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앞으로 중조관계발전의 아름다운 전도를 공동으로 설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데 관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습근평총서기동지와 김정은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지난 시기 쌍방은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계속 관철리행하며 중조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워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휘황찬란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시며

지금 공화국의 앞길에 조성된 시련과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인민들의 투쟁기세, 애국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그것은 언제나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고 백승의 지략과 담력으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얼마전에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줄기차게 내밀수 있는 불멸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의 무기를 안겨주시여 인민들에게 더 큰 신심과 용기를 불러일으켜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날과 달은 어떻게 흘러왔던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에로 이행시켜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속에 흘러왔다.

올해 정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정세에 립각하여 국가경제토대의 재정비와 발전 그리고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옳바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새로운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첫해부터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여러날에 걸쳐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잠시의 휴식도 없이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조직하시고 시, 군들을 하루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묘술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이렇듯 끝없는 사색과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의 인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였으며 더욱 확실해진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자기가 맡은 일터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왔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단위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는 보도가 련일 전해지고있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잘 엿볼수 있게 한다.

이처럼 시련과 역경을 뚫고헤치며 공화국의 줄기찬 전진을 이끌어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인민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기본취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날에 걸쳐 전원회의를 지도하여주시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들의 상반년기간 사업정형을 상세하게 분석총화하시고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룩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불철주야의 사색과 헌신으로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힘차게 추동하는 불멸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중대정책들도 채택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진정 비범특출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는 혁신과 비약을 안아오는 무궁무진한 힘으로 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며 막아나서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헤쳐 올해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자립경제의 50년, 100년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정비보강을 완강히 추진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대결정들을 내린 력사적인 회의로, 전진도상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분발력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의의깊은 회의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어떤 침체나 답보도 모르고 올해의 력사적진군길에서 승리자로 자랑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무한한 격정과 희열속에 새겨안은 부름이 있다.

위민헌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자구구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헌신적복무의 세계가 뜨겁게 맥박쳐흐르는 금옥같은 이 명제에서 인민들 누구나 감격에 목메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기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을 엄숙히 선서하시였다.

위민헌신, 이 부름과 함께 이해의 날과 달이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련이어 소집하신 중요한 회의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밝혀주시며 끊임없는 사색과 헌신을 바쳐가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는 대규모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장에 나오시여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그속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모두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몸소 현지를 밟아보시며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만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혀주시고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자신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인민들 누구나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를 페부로 절감하였다.

돌이켜보면 만수대언덕아래 창전거리가 새롭게 일떠서던 그 나날로부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비약적인 속도로 나라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른 인민의 행복의 창조물들, 과연 이것이 세월의 루적이 안아온 력사의 변천이였던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자신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숨막힐듯 한 폭열속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며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하였다고,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딴듯 기분이 들뜬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못 잊을 그날의 화폭, 저 섬에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있다고, 그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끝끝내 이어가신 신도군에로의 바다길과 인민들의 시력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건설중에 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에 오시여서도, 완공된 날에 찾아오시여서도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거듭 외우신 사랑의 이야기, 큰 물이 범람하여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은파군 대청리의 미끄러운 진창길과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이 이 비바람속에서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시며 어느 시각에 물먹은 철길로 반들이 주저앉을지 모르던 그 험한 길을 주저없이 헤쳐가신 만단사연…

진정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숭고한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어가신 그 모든 사색과 헌신은 하늘도 감복할 위민헌신의 위대한 력사이고 그 력사속에 무성한 숲을 이룬 인민의 재부들이다.

하기에 인민들은 이번에도 크나큰 흥분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소식을 접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친히 서명하신 인민사랑의 특별명령서를 장내를 향해 펼쳐드시는 거룩하신 영상을 TV화면으로 뵈오며 인민들은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또 적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운 어버이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입니다.》

인민들이 저저마다 터친 이 심장의 토로.

정녕 해빛같이 따사로운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서 이 나라 인민은 산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위민헌신의 천만리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시여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이 다시금 가다듬는 철석같은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웃음을 위하여 아이들의 밝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선렬들
낯설은 산야에 청춘을 묻었던가
사랑이였네 조국의 미래였네
아이들의 웃음이였네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아 내 사랑 다하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

가요 《후대들을 위하여》가 창작된것은 1990년대이다.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도 이 노래는 사람들속에서 즐겨 불리워지고있다.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공화국인민들의 자랑이고 기쁨인 아이들의 밝은 웃음, 그 웃음을 이 땅우에 더욱 만발한 화원으로 꽃피워주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겨가시는 헌신의 자욱자욱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해님의 사랑이다.

무심히 대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산뜻한 교복에 《민들레》학습장을 넣은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속에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는 행복동이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이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꾸려진 멋쟁이궁전, 야영소들마다에서 랑랑히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청아한 웃음소리…

어디서나 볼수 있는 범상한 일이던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만연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제일 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꽃망울도 펼쳐보지 못한채 시들어가고있는 처량한 모습을 수없이 목격할수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후대들의 고운 꿈과 아름다운 희망이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으니 해빛같은 열과 정으로 아이들을 품어안아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와 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이야기를 떠나 어찌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듯 싶다.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절절한 음성이.

한알의 모래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알의 모래알처럼 작아질 때까지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그처럼 뜨거운 헌신의 세계, 고결한 희생정신속에 이 땅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주체101(2012)년 소년단원들의 명절인 6.6절을 력사에 류례없는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축하연설도 해주시며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을 담아 따뜻이 불러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의 영상이,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쏟아지는 폭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옥류아동병원건설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만단사연이며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만족하시여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자신의 심중을 터놓으시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잊을수 없는 봄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도 아낌없이 바치시고 육친의 정과 사랑을 기울이시는분, 이른새벽, 깊은 밤 가림없이 후대들을 위해 억만자루의 품을 들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이해에도 꿈같이 받아안지 않았던가.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성스러운 려정우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중대의정으로 제시된 육아정책.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해줄데 대한 하늘같은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실 때 이 나라 인민 누구나 북받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바로 그래서이리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구김살없이 행복하게 키우시려는 불같은 열망으로 심장을 끓이시는 어버이의 다심한 손길, 뜨거운 사랑속에서 혁명하는 보람, 투쟁하는 멋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인민이기에 이 노래를 그토록 애창하고있는것이다.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봄날의 해빛같이 따사롭고 인자하신 어버이의 품속에서 더없이 밝고 창창할 내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후대들을 위하여 성실한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열의가 그대로 노래에 실려 이 땅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보람찬 구슬땀 즐겁게 바치는가
사랑이라네 조국의 미래라네
아이들의 웃음이라네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너희들은 우리의 희망
아 내 사랑 다하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정순진

인민을 위한 특별조치들

《특별》이라는 표현은 보통과는 다르게 따로 정하거나 취하는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례사롭지 않고 평범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것이다.

이 《특별》이라는 말이 공화국에서는 근로인민대중과 나란히 많이 쓰이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령도자의 특별명령, 특별지시, 특별조치들이 취해지고있는 나라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이다.

얼마전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다.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 하늘같은 존재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통분함과 절통함으로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그 나날 민족의 어버이를 목놓아부르며 가슴치는 인민들의 얼어든 손을 따뜻이 녹여준분이 계셨다.

그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시련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이 추워한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한시바삐 인민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할데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그 특별조치에 따라 조의식장들마다에 더운 물매대가 생겨나고 따끈하게 몸을 녹일수 있는 가설물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애도기간이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아야 한다고 하시며 특별수송대책까지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수도의 집집마다에 사연깊은 물고기가 공급되던 눈물겨운 화폭들도 공화국인민들의 뇌리에는 생생히 새겨져있다.

그 나날들에 인민은 찬바람을 막아주고 언몸을 녹여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있음을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은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더 특별히 가닿는 어머니의 다심하고 사려깊은 사랑이다.

몇해전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 함북도의 인민들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시키시는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강추위가 오기 전에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부터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건설을 피해복구전투의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시고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신 특별조치에 의하여 불과 두달 남짓한 사이에 인민들은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천지개벽된 마을들에서 덩실한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게 되였다.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취해주신 긴급조치에 의해 인민군대와 수도당원사단들이 자연재해를 당한 현지에 급파되고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았던 주민들이 군당위원회청사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에 언제나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 인민을 두시고 더 좋은것, 더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고 늘 마음쓰고계시는것이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인민이 이토록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리우고 령도자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의 한길만을 걸으시는 그런 가슴뜨거운 화폭이 련이어 펼쳐지는 나라는 없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발령하신 특별명령서는 인민에게 흘러드는 사랑의 자양분이 되여 그 어떤 시련도 뚫고나가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배가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선물식물 금전송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주체82(1993)년 9월 중국 베이징식물원(남원) 원장 장치명이 삼가 올린 선물식물이다.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있던 장치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중국의 특산종인 금전송과 함께 장미품종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희귀한 식물들을 선물로 준비하였다.

장치명은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대표단 성원들에게 자기의 지성이 깃든 식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드려줄것을 절절히 부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름다운 꽃들과 희귀한 식물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시며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공화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에 맞게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폭넓은 협상제안들을 내놓고 그 리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1971년 4월 12일부터 14일사이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회의는 공화국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의한 평화통일방안들에 기초하여 8개 항목의 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하여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제기한 8개 항목의 방안에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북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축소, 자주적,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실시,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수립,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실시, 민족의 당면과업을 협의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정치협상회의소집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호소문은 이밖에도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 호상 리해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것이라는것을 밝히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평화통일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들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6일 캄보쟈국가원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안은 국내외의 변화된 새로운 정세속에서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결정적인 대책이였다.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침내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할수 있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시선이 평양으로 쏠리고있던 그 나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렬강들의 롱락물로 될수 있으며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허용할수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될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꼽아가시며 그 본질적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였다.

그것은 우선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된 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거듭 제기하여온 통일제안들을 집대성하고 구현한 통일강령이였다. 또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였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민족의 통일강령으로 온 세상에 울려퍼지게 되였다. 삼천리는 통일의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공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장 정확한 통일의 라침판을 가지고 신심과 희망에 넘쳐 조국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춘원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고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도 강화되였다.

주체61(1972)년 5월 2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을 만나주시였다.

미국기자들이 평양에 체류하고있을 당시 국내외정세는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었다.

공화국이 내놓은 폭넓은 북남협상방안으로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펼쳐지고 겨레의 통일기운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었다.

특히 1972년 5월초 평양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온 민족의 통일열기를 북돋아주었다.

이 력사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시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혀주시였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이 평양에 찾아온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은 그이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자기들이 올린 물음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백한 대답을 듣고난 그들은 또다시 수령님께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물음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조선민족은 한피줄을 이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는것을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안으며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은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였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을 불러

진정한 애국의 길은 어디에 (3)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던 김규식선생은 자기의 서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이시야말로 걸출한 영웅이시오. 정말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안과 구국대책에 대하여 량심적인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가 받아들이지 않겠소. 더구나 탄복되는것은 사상이나 신앙, 정견여하를 불문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뭉쳐 나아가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위대한 포옹력이요. 우리 삼천리강산을 통일천하하실 민족의 유일한 령도자는 오로지 **김일성**장군님 한분밖에 없소.》

그후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진행하시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문제를 자률적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을 철저히 가지는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시며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피의 력사적 교훈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에게는 통일독립의 진로가 무엇인지 뚜렷이 안겨왔다.

4월남북련석회의에 뒤이어 진행된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 북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강발전하는 북은 진정 인민의 나라, 자주의 나라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하여 선생은 련석회의이후 쑥섬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도 남먼저 수표하였고 김구선생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에서의 《단선단정》음모책동을 매국분렬행위로 단죄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자주적인 통일로선을 따라 싸워갈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다.

참으로 선생이 택한 북행길, 이 길은 비단 민족의 운명이 자주인가, 예속인가, 통일인가, 분렬인가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자주와 통일을 택한 애국의 길만이 아니였다.

선생에게 있어 이 길은 그토록 고심참담하면서도 알수 없었던 자주독립의 길, 통일의 정로를 알게 한 길이였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대정치가, 삼천리강토를 통일천하하실 민족의 유일한 령도자를 알게 한 운명적인 길로 되였던것이다.

선생은 그후 자기의 맹세를 지켜 심신을 다 바쳐 싸웠다.

서울로 돌아온 선생은 려장을 풀기도 바쁘게 몰려든 미국의 AP, UPI 등 외신기자들앞에서 《나는 이번에 평양에 가서 영명하신 지도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진정한 애국자가 어느분이신가를 똑똑히 알았다.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북조선에서는 우리 조선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있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나쁘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추상같이 웨치며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단선놀음을 폭로하였다.

선생은 사대매국세력들의 온갖 감언리설에 침을 뱉고 김구선생과 함께 각계각층의 애국동포들이 통일독립운동에 총궐기할것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분투하였다.

이에 바빠난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단독정부》조작을 수월히 하기 위해 그의 정치활동을 악랄하게 탄압해나섰으며 《서북청년단》깡패들을 내몰아 선생의 집을 습격하게 하는 등 온갖 비렬한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이 지닌 통일애국의 지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외세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으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협상파—통일애국세력의 긴급중대협의회가 열렸을 때에도 그는 모두가 오욕된 때를 말끔히 씻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으로 통일천하하실 민족의 령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와 련합해나가는 련공애국세력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병약한 70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가야 한다, 북에 가서 그리운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마음다지며 두번째 북행길에 오른 그였다.

이것은 선생이 민족의 태양을 따라 통일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으려는 신념으로 택한 량심의 길, 정의의 길이였다.

정녕 이 길을 걸었기에 선생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후세에 길이 남는 참된 애국의 삶을 지닐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몸소 일군들을 보내시여 김규식선생을 맞이하도록 하시였으며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민주인사들에게 최대의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김규식선생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김규식선생이 서거했다는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끝내 사망하였다고, 그는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지만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배격하였다고 하시며 《민주조선》이나 《조국전선》신문에 부고를 내고 그의 추도식도 잘 하여주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장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고 추도식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서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규식선생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해주시고 그의 묘를 신미리에 있는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여 겨레의 추억속에 통일애국인사로 영생하도록 해주시였다.

참으로 민족적량심을 지닌 애국인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그 뜨거운 은정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는 한없이 숭고한것이였다.

하기에 운명하기직전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정에 끝없이 감격하여 이런 시를 남겼었다.

오호라,
위대하도다, 현명하도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이내 인생을 구원해주셨소
이 한몸 죽은들 천만년 잊을 손가
자애깊으신 **김일성**장군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계시여 사대굴종으로부터 자주애국에로 삶을 극적으로 전환한 그의 심장에서 분출된 감사의 노래, 뜨거운 경모의 송가였다.

선생은 떠나갔으나 그의 넋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도 살아 우리 겨레를 성스러운 통일애국의 길로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더욱 높아가는 악법철폐의 목소리

얼마전 남조선의 《오마이뉴스》는 《보안법폐지를 위한 행진》이 진행되였다고 전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시작하여 청와대앞까지 진행된 행진에는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서울, 인천 등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법》의 실체에 대해 폭로한 후 행진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기와 더불어〉 출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일단체에 대한 기소와 구속이 보안법을 통해 이어지고있다. 보안법은 남북합의이후에도 통일운동을 탄압하고있다.》, 《우리는 보안법이 페지될 때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투쟁은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5월에도 《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여 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어서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고 한다.

사실들은 악법을 기어이 페지시키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부동산투기책임은 과거정부때부터 이어진 문제》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것들이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지연시키고있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당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피대를 돋구며 비난하던 《국민의힘》이지만 정작 자기들에게로 조사의 올가미가 조여져오자 그것을 피하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것이다.

원래부터 보수패당은 부동산투기의 왕초들이다.

수서지구주택지특혜분양사건, 정보사땅사기사건, 내곡동주택부지매입사건, BBK주가조작사건 등 지난시기 보수패당이 개입된 악취풍기는 부동산투기사건들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잡지 《시사저널》도 《응답자의 과반 〈LH(한국토지주택공사)투기책임, 과거정부부터 이어진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임기중 벌어진 공공기관부패의 1차적책임은 단연 현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출범후 12년간 공룡권력이 돼버린 LH의 문제를 현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수 있을가. 여론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LH직원들의 투기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과 과거정부때부터 이어져온 문제라는 의견중 어느것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3.8%가 과거정부때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답했다. 〈현 정부책임이 크다.〉는 응답(43.6%)보다 10.2% 높았다. …

어느 한 사회학과 교수는 LH사태는 과거엔 한점 잘못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긴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당연하게 불공정했던것들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분노로 하나둘 드러나고있다, 이는 사회가 공정에 더 민감해지고있다는 증거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홍역을 겪고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가리가 썩으면 꼬리까지 썩기마련이다.

《국민의힘》것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투기의혹조사를 회피하려고 요리조리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은 속이 켕겨서라는것이 여론의 진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군소야당들마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자진의뢰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였지만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내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있다고 한다.

그것은 《국민의힘》안에 다른 정당들에 비해 재력가들이 훨씬 더 많은데다 일단 부동산투기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정도로 당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기때문인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부동산투기조사는 한마디로 대국민사기극, 가짜쇼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부동산전수조사다. 차떼기당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고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고 한다.

보는것처럼 지금 보수세력이 《혁신》의 바람을 일구며 《정의》와 《공정》을 떠들고있지만 이것은 민심을 우롱하는 기만극이라는것을 부동산투기조사의 일단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생존권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청년들

근절되지 않는 군성범죄

—남조선언론들 분석평가—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군성범죄 〈흑력사〉, 단절되지 않는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였다.

《군의 성범죄 〈흑력사〉가 단절되지 않고있다. 공군 녀군부사관이 성추행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문에 붙여달라.〉는 주변의 압박에 극단적선택을 한 사건은 군의 성범죄대처가 과거와 크게 다를바없음을 보여주고있다.

국방부는 2015년 3월 군내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뒤에 돌아앉아서는 〈제집안감싸기〉에 몰두하다나니 2012년 386건이던 군성범죄가 2015년에는 639건으로 1.7배가까이 급증했다. 이후에도 부대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군성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8년에는 륙군장성이 부하녀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지난해에는 륙군 118건, 해군, 해병대 45건, 공군 19건 등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군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 〈상관의 권력을 리용한 압력〉, 〈잘못을 숨기려는 조직문화〉 등이 꼽힌다.

…술에 취한 상관이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게 아니라 계급이 높은 자신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소위 〈권력형성희롱, 성추행〉이다.

성범죄근절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적용한 이후 가해자나 부서장들이 〈없던 일로 눈감아달라.〉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는것도 문제다.

실제 이번 공군녀부사관성추행사건이 터진것도 해당 부대에 파견왔던 다른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한번만 봐달라.〉는 요청에 더이상의 문제제기를 포기한것이 결과적으로는 비극으로 이어진것으로 볼수 있다.

주변의 조직적은폐와 회유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리유다.

군수사기관이 파문줄이기에 급급한 수사를 하고 민간법원보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관대한것도 성범죄가 줄지 않는데 일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군 군사경찰의 엉터리수사와 부실대응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핵심증거가 될수 있는 가해부사관의 휴대전화압수도 공군 군사경찰은 피해자사망 9일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실시했다. 피해발생 석달만이다.

작년 국회국정감사에선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각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재판 1 708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이였음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률(25.2%)보다 15% 낮은 수치로 나왔다.》

언론들은 남조선 각계층이 군대안에 만연되고있는 성폭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군부가 성범죄를 비호묵인한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군대내 성폭력근절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한일혁

집값상승으로 남조선 각계가 울분을 토로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먹고 입는것과 함께 쓰고 살 집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

아무리 식량과 소비품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착된 생활을 할수 없다.

하기에 주택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고있는 집값으로 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저마다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있다고 한다.

23일 남조선방송 《CBS》는 지난 4년동안 집값이 무려 2배가까이 뛰여올라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집을 사는데 25년이 걸린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경실련)이 주장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4년동안 서울의 11만 5 000여세대의 주택시세를 분석한 결과 한평당 평균집값이 93% 상승했다고 하면서 집값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뛰여올랐다고 하면서 《…전세값이 최대로 올랐다. 집값도 서울이나 지방 가릴것 없이 뛰여오르고있다.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있다. 총체적 〈부동산난국〉이다.》라고 전하였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프레시안》 등도 남조선 각계층이 집값과 전세값폭등으로 하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주택문제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글들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르고 《집값때문에 죽겠습니다.》, 《부자인 부모가 없으면 내 집마련 못해》, 《부동산난국으로 하여 내 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라고 울분을 터놓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다.

《집을 구하러 다닌지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헤매고있다. 처음에는 내게 주어진 권리라 당당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지만 한바퀴 돌고나면 한없이 초라해진 나자신을 발견한다. 서울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살 집은 왜 없는가요. …집을 구하러 다닐때가 가장 큰 수치심을 경험하는 시기같다. 특히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작 1억원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하냐는 핀잔을 듣고서는 주거절벽이라는 거대한 좌절을 맛봤다. 지금의 내 처지에 더 좋은 주거환경은 언감생심 아닐가 한다.》

남조선에서 주택문제는 갈수록 해결이 더욱 어려운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친일매국적인 판결에 민심이 분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과거 일제가 저지른 강제징용범죄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시킨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가 계속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14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보도하였다.

평화나비대전행동은 이날 대전시의 강제징용로동자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징용소송각하판결은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것》이라며 격분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본정부와 극우세력의 립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 모욕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재판부가 무슨 권리로 법적판단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에 대한 개인의 립장을 궤변에 가깝게 늘어놓고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이번 판결로 인권과 존엄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들과 련대해 일본정부의 식민지지배 및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을 받아내고 력사의 정의를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한다.

앞서 다른 한 언론은 강제징용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데 대해 전하였다.

본사기자

후안무치한 왜나라족속들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는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기에 인간은 설령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것을 씻기 위해 노력하는것이다. 그럴 때만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사람들속에 인정받고 살아갈수 있기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 인간은 파렴치한 인간으로 저주받고 비난받으며 랭대받는것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들에 해를 입히지 않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과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낼수 있는것이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총리는 파쑈도이췰란드의 이전 쏘련침공일을 맞으며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에서 도이췰란드는 파쑈도이췰란드의 범죄에 따른 변함없는 책임을 자인한다, 이는 우리가 수백만명의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진 빚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존자들에게 겸허히 고개숙이고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지구의 서쪽에서 나치스분자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며 추모하고있을 때 그 반대편인 동쪽에는 전쟁의 불길속에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들씌운 저들의 극악무도한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력사외곡에 혈안이 되여 날뛰는 나라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앞에 파렴치성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는 일본이다.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정부의 고위인물들과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몰려들어 참배를 하고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것이 바로 전범국 일본이다.

또한 력사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 없는 성노예범죄를 그 누구의 《오보》에 의해 《날조》된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인신매매피해자》로 모독하는짓을 서슴지 않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최근에는 도꾜올림픽박물관이라는 곳에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과시한 손기정을 일본인선수인것처럼 전시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땅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일본이야말로 정말 백주에 귀막고 남의 소방울 도적질할 뻔뻔스러운것들이다.

손기정으로 말하면 1936년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1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종목에서 1등을 한 조선사람이다.

하기에 당시 신문 《동아일보》는 우승대에 오른 손기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렸으며 이에 노발대발한 총독부당국은 《동아일보》에 정간처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들을 구금까지 하였던것이다.

일명 《일장기말소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도 력사의 갈피속에 뚜렷이 새겨져있으며 손기정은 조선민족의 장한 청년으로 민족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손기정을 오늘도 저들의 더러운 《일장기》를 단 일본인선수로 뻐젓이 소개하는 일본의 속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도꾜올림픽을 선전하는 인터네트홈페지의 일본지도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손기정도 일본사람이라고 올림픽박물관에서 꺼리낌없이 선전하는데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세상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짓들이 모두 정당하다는것을 인식시키고 일본인들속에는 조선민족의 《렬등감》과 야마도후손들의 《월등감》을 고취시켜 떨어진 저들의 인기를 올려보려는 현집권세력의 흉심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보다싶이 일본은 세계의 친선과 단결,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려는 고상한 올림픽정신이 발현되여야 할 국제경기대회를 타민족배타주의와 재침야망을 선전하는 정치적대립과 대결의 란무장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는 나라와 대조되게 저렬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보았댔자 차례질것이란 세계적인 조소와 규탄, 배격일뿐이다.

신기복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민족의 피로 얼룩진 군국주의경제부활

일본은 아직도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죄악은 단순히 조선에 대한 군사강점통치기간에만 한정되여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도 천인공노할것이다.

패망후 일본의 경제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가뜩이나 파괴되였던 일본경제는 대전의 종결과 동시에 일본을 타고앉은 미국의 손탁에 주물리우면서 더욱 한심해졌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던져주는 《구제원조》를 받아먹으며 겨우 살아가고있었다.

그러던 일본경제의 배가 죽이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작스레 기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죽어가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되여 급속히 되살아나 비대해지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그 어떤 비밀도, 수수께끼도 없다.

일본경제는 바로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조선민족의 피의 대가로 부활될수 있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일본반동들이였다. 조선전쟁이야말로 일본에 있어서 죽어가던 경제를 부활시키고 재침의 발톱을 벼릴수 있게 한 절호의 기회로 되였던것이다.

일본은 자기 땅을 통채로 조선전쟁을 위한 병기창, 보급기지로 내맡겼다.

일본은 조선전쟁기간 정부기구로서 《특수조달청》이라는것을 내오고 독점재벌들의 련합체인 《일본경제인련합체》안에 《방위생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통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군수품의 생산과 수리를 적극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 공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국내의 모든 공장들을 전시생산에 동원하였다.

망해가던 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이 제일 큰 덕을 보았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대량적인 《특수주문》들을 하였다.

일본은 조선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탄약을 전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전쟁기간 공화국의 평화적도시와 마을들에 무차별적으로 투하된 악마의 무기인 나팜탄은 일본의 닛싼자동차, 이시이철공, 도요화열공업, 소화자동차 등의 기업들에서 대량생산되였으며 이것은 미극동공군특수주문의 90%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공장, 기업체들은 미군을 위하여 포탄, 탄약, 화약, 로케트탄, 조명탄, 나팜탄, 박격포, 무반동포, 유도탄기구, 비행기 및 땅크부속품, 피복, 모래포대, 위장망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물자들을 생산하였다.

조선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전시물자생산은 더욱 늘어났다.

일본의 공장들에서는 1952년 5월부터 1953년 6월까지 사이에만도 약 2 000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포, 《바주카》형의 7 656문의 반땅크포, 40만개의 로케트탄, 120만발의 포탄, 230만개의 각종 지뢰와 220만개의 수류탄을 생산하여 미군에 제공하였다.

나팜탄을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에 의해 우리 민족이 참기 어려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있을 때 일본독점체들은 《신풍》(신이 도와준 호경기)을 맞았다고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미국의 군수품들을 생산보장하는데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돈주머니도 불어났다.

제약공장, 옷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파철을 수집하는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크고작은 모든 공장, 기업체들이 조선전쟁기간 미국의 각종 군수품들을 생산보장해주고 뭉치돈을 벌었다.

병기수리를 통해서도 일본의 공장, 기업체들은 부유해졌다.

일본에서는 파손된 미군자동차의 84%, 포의 68%, 보병무기의 70%를 수리하였다.

하기에 당시 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1951~1953년 기간에 일본은 조선전쟁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되였다.》고 평하였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기초는 이렇게 닦아졌다.

조선전쟁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민족은 참혹한 고통과 불행, 재난을 당하게 되였다. 이렇게 일본은 패망후에도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엄청난 피해와 죄악도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는것으로서 반드시 결산되여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원아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

— 평양초등학원을 찾아서 —

흔히 고아라고 하면 키워줄 보호자가 없는것으로 하여 불행과 설음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하지만 얼마전 평양초등학원을 찾은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복받은 원아들의 모습을 감동깊이 목격할수 있었다.

생활에 아무런 불편도 없게

멋들어진 울타리너머로 파란 인공잔디를 입힌 운동장에서 축구훈련에 여념이 없는 원아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재치있게 빼몰기를 하다가 힘껏 차넣기를 하는 공격수, 날랜 동작으로 공을 두손으로 받아치는 문지기…

희열과 랑만에 넘친 원아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라금이교원은 지금 원아들의 과외수업이 한창이라며 교사로 안내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가정교육실, 자연실, 음악 및 춤보급실, 전자도서열람실, 가상견학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콤퓨터와 화면이 큰 액정 TV, 원아들의 흥미와 교수밀도를 높여주는 교수보조용 로보트며 기계팔, 사계절의 자연을 보여주는 360°립체현시기, 백수십여종의 동식물표본들, 저대, 손풍금을 비롯한 악기들, 《세계명작동화집》들과 각종 유희오락기재들…

현대적인 교구비품들을 갖추고 다기능화, 정보화되여있는 학습실들에서 원아들이 일반기초지식과 체육, 예능교육뿐만아니라 가정교육도 받고있었다.

복도에는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갖가지 그림들이 그려져있어 학원안의 모든 공간이 그대로 지식과 상식을 주는 교육홀로 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기숙사의 침실들과 식사실, 리발실, 치료실 그리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이 그득한 창고며 세탁실, 야외건조장 등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게 꾸려져있었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훌륭히 꾸려진 이곳 초등학원의 그 어디나 원아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여

학원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절세위인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고 원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온갖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교직원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원아들이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새 지식에 대한 리해를 보다 쉽게,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새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하나의 교육기재라도 더 장만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가는 교원들, 아플세라 건강을 보살펴주는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남새온실이며 양어장, 축사 등 후방기지들을 그쯘히 일떠세우고 원아들을 보다 튼튼히 키우기 위해 애쓰고있는 학원종업원들…

비단 이들만이 아니였다.

원아들을 위해 성의껏 준비한 물자들을 안고 찾아오는 이름모를 아버지, 어머니들, 정기적으로 찾아와 원아들의 건강을 검진하는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 원아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해 늘 관심을 돌려오고있는 평양시안의 여러 기관, 기업소 일군들도 있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원아들도 만나보았다. 원아들은 《나라에서 친혈육의 정으로 철따라 첫물과일들과 교복, 학용품, 고기, 당과류를 제일먼저 보내주고있습니다. 어서빨리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저마다 이야기하였다.

라금이교원은 모든 원아들이 학습도 잘하고 노래와 춤을 비롯한 여러가지 재간을 가진 재간둥이들로 자라고있다고 하면서 전국소묘, 서예축전에서 당선되고 글작품집을 내놓은 원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렇듯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그리고 원아들의 성장을 위해 바쳐가는 교직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속에 원아들의 꿈과 희망이 활짝 꽃펴나고있었다.

오늘 세계적으로 부모잃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돈에 환장한 인신매매거간군들에 의해 물건처럼 매매되고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을 원아들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활짝 꽃펴나는 사회주의대화원에서 이 세상 만복을 받아안으며 무럭무럭 자라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원아들의 요람을 지켜주고 먼 앞날까지 책임져주고있기에 원아들 누구나 한점 그늘도 없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있는것 아니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어디선가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본사기자 림광훈

가정을 통해보는 두 사회

가정은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사회의 세포이며 기층생활단위이다.

매 가정에 사랑과 정이 넘치고 화목이 깃들어야 사람들은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보다 정열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사회생활전반이 활기를 띠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귀중한 생활터전, 보금자리라고 부르며 가정에 기쁨과 행복만이 자리잡기를 원한다.

오늘 공화국의 가정들에서 꽃펴나는 따뜻한 덕과 정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지난 5월 강령땅에서는 금동은정차재배원에서 일하는 40여명의 제대군인종업원들이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고 새집들이를 하였다.

군내 모든 세대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가장집물들이 가득찬 새 집으로 들어서며 그들은 《당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이 넘쳐흐르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 한식솔로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입니다.》라고 마음속 격정을 터놓았다.

어찌 이 제대군인가정들뿐이랴.

나라를 위하여 청춘을 빛내인 특류영예군인들과 한생을 같이하며 행복을 가꾸어가는 가정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친자식이 되여 극진히 돌봐주고있는 사람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 혈육의 정을 깡그리 바치고있는 《처녀어머니》, 불치의 병으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업고다니며 치료를 해주어 끝내는 대지를 밟을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선생님들…

그러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속에는 원산시 송흥동진료소의사 김경희도 있다.

그에게는 오랜 세월 친혈육의 정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명절날이나 의의깊은 날들이 오면 어김없이 그의 집을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하고 그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정깊게 나누는 이들을 보며 이웃들은 마치도 한피줄을 타고난 혈육들 같다고 말하군 한다.

그들은 다름아닌 환자치료과정에 김경희의사가 알게 된 부모를 잃고 홀로 지내는 제대군인들이였다.

(내가 저들의 친누이가 되여주자.)

이런 결심을 안고 김경희의사는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항상 관심하며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였고 새 가정을 이룰 때에는 자기 집에서 결혼상도 차려주면서 언제나 그들이 병사시절처럼 살아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었다.

그 나날 이들의 마음속에 김경희의사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찾고 의탁하는 귀중한 친누이로 깊이 자리잡게 되였던것이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한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러나 돈이 사람들의 인격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정이 불안과 범죄를 낳는 온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매일과 같이 자식학대, 부모학대, 안해학대사건들과 각종 살인범죄사건들이 일어나 사랑과 정이 넘치고 행복이 깃들어야 할 가정의 참다운 의미를 망각하게 하고있다.

더구나 남조선에서는 가정아닌 《가정》인 1인세대라는 것이 급속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거리가 되고있다고 한다.

2020년 남조선의 1인세대수는 906만 3 300여세대로서 2016년에 비해 21%나 늘었다고 한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의 1인세대는 월세, 전세를 비롯한 힘든 경제적부담으로 빈곤계층으로 내몰리고있으며 경제적밑천이 없는 70살이상 1인세대들도 가난과 만성질환, 자식들의 배척으로 하여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고 한다. 해고, 리혼등으로 가족과 갈라져 1인세대생활을 하고있는 중장년층들도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누구도 모르게 죽어가고있으며 설날과 추석을 비롯한 명절때마다 수십명이 삶을 비관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실정이다.

1인세대생활을 하고있는 녀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도 성행하여 사회적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자기 리익중심의 개인주의의 산물인 1인세대의 증가는 빈곤과 렬악한 주택환경, 자살로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1인세대의 엄혹한 실태와 고단한 삶은 남조선사회의 축소판이라고 개탄하고있다.

남편과 안해, 자식과 부모들사이에 무시무시한 살인범죄와 학대행위들이 례상사로 되고있고 개인주의산물인 1인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있는 남조선사회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가정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화목한 공화국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가진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랑과 정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은 나날이 승승장구할것이다.

강영진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공화국에서 국토환경을 보호하고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과 바다오염방지법 등이 수정보충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이 채택됨으로써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적토대가 강화된데 맞게 국토건설과 환경보호에서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산림조성 및 사방야계공사대상지, 산불피해대상지, 산림토지 및 목재자원의 변동정형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작성과 임무분담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재해성기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예견성있게 벌어지고있다.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는 최근년간 재해성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맞게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당 단위들과의 항시적인 련계밑에 실태를 장악하면서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해나가고있다.

— 기상수문국에서 —

특히 올해에 큰물과 태풍피해가 들이닥칠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연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도, 시, 군들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위주로 강바닥파기, 제방성토, 장석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로의 면모를 개선하고 도로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나가고있다.

그리고 폭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뽐프장들과 지하건늠길 등의 배수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며 장마철에도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상수망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또한 해안연선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해안보호시설의 건설과 보수, 보강, 영구화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한 전망목표도 작성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난 시기의 피해실태자료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저수지제방, 관개물길, 배수문보수 등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장악과 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화력발전소들의 저탄장정리와 보수를 깐깐히 하고 수력발전소들의 언제와 수문들을 정비하는것과 함께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이 큰물과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한편 송배전단위들에서 철탑과 전주, 송전선과 변전설비들의 불비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도록 하고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철길들의 기술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위험개소, 불량개소들을 찾아 퇴치하며 철다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기상수문부문에서도 재해성기상현상에 대한 예측을 바로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정확히 통보하는 체계를 완비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봉사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토지의 퇴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중앙양묘장과 각 도, 시, 군모체양묘장들에서 용기에 의한 나무모생산비중을 높이며 우량품종을 육종하는 등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나가고있다.

하여 국토의 면모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나날이 변모되고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교육자들의 집 (1)

2014년 10월 어느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새집들이를 하는 날 나는 조국방문단 성원들과 어울려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 건설을 발기하시고 설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도해주시고 흙먼지날리는 건설현장에까지 몸소 나오시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였다.

완공의 그날에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대동강에 떠있는 돛배같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는 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는 살림집이였다.

조국에서 교육자들에 대한 관심과 우대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었다.

초고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높이 솟구쳐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도착하니 새집들이를 축하하는 교원가족들과 학생들의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새집들이풍경에 사로잡혀 걸음을 옮기던 나와 일행은 이사짐을 든 사람들과 맞다들었다. 알고보니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교수, 박사 문학춘교원과 그의 가족이였다.

문학춘교원으로 말하면 오래동안 교원으로 있으면서 후대교육사업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있는 교원이라고 한다. 그의 두 아들과 며느리들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이였다. 대를 이어 과학기술로 조국을 받드는 가족이라 해야겠다.

우리가 1현관 10층 1호에 자리잡은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경탄의 목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도 그만하면 크고 좋은 집을 쓰고사는편이지만 집세가 여간 만만치 않다. 그런데 평범한 대학교원이 공동살림방, 부모방, 자식방, 서재, 부부방이 있고 부엌, 창고, 복도까지 있어 어느 방부터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큰 그 집을 무상으로 쓰고산다니 왜 놀랍지 않았겠는가.

문학춘교원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집이 멋있을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의 가구, 한 칸의 살림방에도 교육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이 뜨겁게 슴배여있습니다. 어제는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나를 국가적인 대회장에 불러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궁궐같은 새 집을 통채로 안겨주시니 그이의 그 은정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며 격정을 터치였다.

재중동포 김영란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천수백년의 력사를 간직한 보통문

우리는 옛 평양성의 서문인 보통문앞에 이르렀다.

문득 리일심연구사가 우리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우리 보통문에 올라 력사를 거슬러가보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유구한 력사가 깃든 보통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모두 유쾌히 웃으며 보통문으로 올라 그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평양성 중성의 서문인 보통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수도성인 평양성을 쌓을 때 함께 세웠다. 지금의 건물은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여 오다가 1473년에 고쳐지은것이라고 한다.

보통문은 평양성 서북쪽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고구려시기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시되였다.

무수히 지나다니면서 보아왔고 또 눈에 익힌 건물이건만 날아갈듯 추녀를 쳐든 합각지붕과 무지개문길을 낸 화강석축대우에 목조 2층으로 된 루각의 모습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랜 성문들중의 하나인 보통문은 세운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축대며 무지개문길이 여간 견고하고 웅장하지 않았다.

리일심연구사는 우리에게 보통문에 깃든 옛이야기도 여담삼아 들려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각기 대동문과 보통문을 맡아 짓고있었는데 거의 완성되여갈무렵 스승이 제자가 지은 보통문을 보고 탄복했다는 이야기며 《보통문에서 길손을 바래우는 광경》이 평양8경의 하나로 꼽힌 이야기,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선조들이 보통문으로 돌입하여 성안에 도사리고있던 왜적을 쳐부신 이야기…

이어 문루에 오른 우리는 선들바람속에 시원히 트인 앞을 흥그럽게 바라보았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휘늘어진 수양버들과 정각들, 조선식건축미를 자랑하며 일떠선 인민문화궁전이며 창광원과 청류관, 빙상관, 특색있게 전개된 봉사시설들…

그런가 하면 인민들에게 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어 보통강강안지구에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우고있는 건설자들의 기세찬 모습도 안겨왔다.

천수백년의 력사가 비껴있는 보통문.

이 고색창연한 력사유적과 더불어 인민의 기쁨과 행복넘친 모습이 평양의 새로운 경치의 하나로 안겨왔다.

본사기자 리철민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정신력의 강자 림정심

기관차체육단 림정심선수는 세계적인 힘장사이다.

그를 가리켜 세계의 력기애호가들은 정신력의 강자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2015년 11월 림정심선수가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할 때였다. 끌어올리기 첫번째, 두번째들기를 성공시킨 그는 세번째 들기 마지막동작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구간을 떨구고 경기장바닥에 쓰러졌다.

국제력기련맹의 의료진은 좌측고관절탈구라는 진단을 내리고 더이상 경기에 출전할수 없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귀전에는 2012년 7월에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 울려퍼지던 애국가가 들려왔다.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

그가 초인간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나 경기장으로 한걸음 또 한걸음 내짚자 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처녀》, 《조선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시위》라고 평하였다.

그후 그는 2016년 8월에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 75kg급경기에 출전하여 빠른 순간채기와 받아안기, 추기의 련결동작을 원만히 수행하여 종합성적에서 2위를 한 선수에 비해 16kg이나 더 들어올리였다.

그는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력기 75kg급경기에서도 단연 우승함으로써 강자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이다.

본사기자

시대를 선도하는 작품창작 활발히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작품창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구들에 달려나간 작가들은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인민의 리상거리건설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서정시 《어버이의 숙원》, 《격전장의 군기》, 《송화동녀인의 이야기》를 비롯한 시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가사 《달려가자 5개년령마루에로》, 《번영의 이 길따라》, 서정시 《황철은 싸운다》 등의 작품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불같은 열의를 잘 보여주고있으며 락관주의정신과 행복넘친 생활을 반영한 《제대병사 왔어요》, 《친정집 찾아와요》, 《어머니 이 딸을 축복해주세요》, 《단발머리》를 비롯한 가사들도 나왔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장시, 위대한 전승세대의 넋과 정신을 이어나갈데 대한 내용의 가사 등 다양한 주제의 시가작품창작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소설작가들은 《산골리발사》, 《나를 부르는 길》, 《춘희분조장》, 《철탑은 폭풍을 이긴다》를 비롯한 여러 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으며 극문학, 아동문학작가들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창작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천연기념물

막대바위

평안북도 염주군 남압리소재지에서 반궁리방향으로 700m 떨어진 곳에 막대바위가 있다.

막대바위는 붉은규장암이 바다깎기와 풍화작용에 의해 드러난것으로서 기묘하게 생기였다.

막대바위는 동쪽의 나지막한 산과 서쪽의 무연한 논벌사이에 놓여있으며 서쪽으로 3km가량 가면 무연한 조선서해가 펼쳐져있다.

이 바위가 바다물에 밀려온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는것으로 보아 바다깎기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바위일대는 바다가풍치와 하나로 잘 어울려 대단히 아름답다.

막대바위의 높이는 10m, 밑둘레는 16m인데 얼핏 보면 금시 넘어질것 같지만 중심이 잘 잡혀있다.

막대바위는 붉은규장암의 풍화작용과 바다 및 륙지와의 경계에서 부단히 진행되는 해식작용과 해양퇴적작용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64호로 지정되였다.

본사기자

얼굴색에 따르는 옷색갈

◇ 얼굴색이 흰 사람은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색갈, 즉 회색같은 옷색갈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소박하고도 맑은 미감을 주며 흰 얼굴색이 더욱 아름다와보인다.

만약 색갈이 진한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희여보이지 않는다.

◇ 얼굴색이 검은 사람은 연한 색갈의 옷을 입는것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미끈하고 건장한감을 주지만 진한 색갈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진회색으로 되여보이고 늙어보인다.

◇ 얼굴색이 누런 사람은 진한 색갈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얼굴색이 진한 옷색에 안받침되여 희여보이며 사람들에게 듬직하고 점잖은 감을 준다.

반대로 회색이나 연한 색의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좀 검어보인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생물공진치료기

생물공진이란 해당 유기체에 그의 고유전자기마당진동수에 가까운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외부적으로 가해줄 때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공진을 말한다.

생물공진치료기로는 병원체들이 내보내는 고유전자기파를 생물공진법을 리용하여 수감함으로써 인체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병원체들을 알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질병들을 진단한다. 또한 병원체들의 고유전자기마당진동수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외부에서 가해주어 공진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병원체를 죽이기도 한다.

이 치료기의 우점은 비약물성치료기구로서 환자에게 아픔이나 자극을 주지 않으며 치료시간이 짧고 치료범위가 넓은것이다.

림상실천에 도입해본 결과 신의학 및 고려의학적방법으로도 치료가 잘되지 않던 신경계통, 순환기계통질병뿐아니라 알레르기성질병환자들도 일체 약물에 의거하지 않고 순수 생물공진법으로 빠른 시일에 완쾌시킬수 있다는것이 검증되였다.

우점은 또한 일반가정세대들에서도 자체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치료할수 있다는데 있다.

생물공진치료의 덕으로 만성관절염이나 추간판탈출증, 변형성척추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부퇴행성질병을 앓고있던 수백명의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았다.

의학연구원 의료기구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단위들에서는 생물공진법을 응용한 효능높은 치료기를 연구개발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료리

양배추말이김치

양배추는 영양가가 높은 남새로서 여러가지 료리에 쓰이며 김치, 소금절임, 초절임, 저장남새로 널리 리용한다.

양배추는 잠장애, 머리아픔, 관절염, 기관지염, 황달 등에 쓰이며 신선한 즙은 가래를 삭이는데 아주 좋다.

즙과 마른잎에서 우려낸 물은 위 및 십이지장궤양과 위염, 대장염, 당뇨병에 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배추 150g일 때 무우 50g, 배 5g, 파 20g, 사탕가루 3g, 고추가루 3g, 다진 마늘 2g, 다진 생강 1g, 소금 20g을 준비한다.

양배추는 속을 도려내고 소금물에 절인다.

무우와 배, 파는 가늘게 채친 다음 사탕가루, 소금, 고추가루, 다진 마늘과 생강을 두고 골고루 버무려 김치소를 만든다.

양배추잎을 편 다음 여기에 김치소를 놓고 돌돌 말아서 단지에 넣는다.

10시간정도 지나서 김치물을 만들어 붓는다.

이렇게 하면 먹음직스러운 양배추말이김치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나의 선택 (1)

글 우향미

공장의 여기저기에서 조용조용 속삭이며 울리던 말들이 점차 커졌다. 마치 가을바람에 부산하게 흔들리는 나무잎새들처럼.

《진화가 어쩜 그 청년을… 그게 정말일가?》

《그 청년이 어째서? 지금은 비록 현장에서 어물거리지만 앞날의 큰사람이 된다는걸 알아야지.》

《그렇긴 하지만 그 앞날이 너무 멀어서 그런다. 공장에 내려온지 벌써 언제인데…》

《하긴 우리 진화야 그 청년에 비하면… 인물 잘났지, 공장적인 혁신자지… 선반에서야 진화를 당할 사람이 있니?》

다 나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항상 작업복을 벗을새없이 새형의 절단기연구사업에 정력을 쏟아붓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연구사청년에 대한 말이였다.

그렇다. 나는 기계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연구사업때문에 우리 공장에 내려온 그 청년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고있다. 사랑의 뿌리가 아직 무성하게 내리지 않아 그런지 때때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정말 그들의 말처럼 대상자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고 저도 모르게 흔들리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다.

사람들은 결혼을 매우 중시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즉 자기의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따라 가정생활이 직선주로를 그릴수도 있고 기복이 심한 곡선주로를 그릴수도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거듭되는 고민끝에 나는 어머니에게 모든것을 털어놓고 의논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의 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버팀목을 든든히 박아줄것만 같았다.

뜻밖에 나타난 녀인

어느덧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 어떤 긍정이라든가 부정, 하다못해 추궁이나 훈시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린듯이 앉아있기만 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착잡한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잠시후에야 어머니는 입을 열고 힘들게 말을 꺼냈다.

《사람을 옳게 보는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일단 옳다고 생각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은 가꿀줄 알아야 한다.》

나는 속시원히 마음을 활열어놓고 이것저것 바재이는것 없이 직선적으로 빠개줄것을 바라며 어머니쪽으로 바투 다가가앉았다.

바로 이때 난데없는 전화종소리가 따르릉 하고 울렸다.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마당에 불청객처럼 뛰여든 전화가 달갑지 않았지만 하는수없이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받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잠시 전류흐르는 소리만 잔잔히 들리더니 조금후에야 주저주저하는 목소리가 진동판을 울렸다. 어머니를 바꿔달라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전화받습니다.》 하고 흔연히 말하다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는 놀라며 한동안 말을 번지지 못했다.

《명희… 명희 네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무심한 태도로 경대를 들여다보던 나는 어머니가 부르는 그 이름에 그만 눈이 커졌다.

아! 나는 그 녀자를 안다. 가슴에 맺히는 추억도 있다.

《리명희.》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웬 일인지 어두워진 기색으로 수화기에 귀를 대고 그 녀자의 말만 듣고있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해바라기무늬가 그려진 책가방을 메고 다닐적에 나는 놀음이 싫증나거나 한가할 때면 어머니의 사진첩을 들여다보기 좋아했다. 제일 볼만 하고 재미있는 사진들은 어머니가 대학시절에 찍은 사진들이였는데 그중에서도 나의 눈길을 끌어당긴것은 어머니와 사진을 매번 함께 찍은 한 처녀의 모습이였다.

사진들에는 《리명희와 함께》, 혹은 《영원한 벗》, 《어디 가도 변치 말자》라는 글들이 활달한 필체로 씌여있었다.

언제인가 하루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어본 일이 있었다.

《어머닌 왜 이 녀자와만 사진을 많이 찍었나요. 딱친구였나요?》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도록 뜯어보다가 《그래, 딱친구였지.》 하고 말끝을 가무리며 호기심에 넘쳐있는 나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사진속의 두 처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친근한 사람들처럼 떨어져서는 못산다는듯이 다정한 미소속에 팔을 끼고 서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지 알수 없었다.

얼마전에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평양제1백화점앞에서 뜻밖에도 그 녀인과 마주친적이 있었다. 사진속에서 익혀온 그의 모습은 언제나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였다. 그렇지만 실물로 본 그의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물우에 뜬 기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였다.

《아니, 옥선이. 너 참 오래간만이구나.》 어딘가 어색한, 그러면서도 떳떳치 못한 목소리였다.

그와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온화하였다.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저… 미안해. 그만 난 바빠서…》 명희는 웃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는 총총히 사람들속에 끼여들어 가버렸다.

가까운 대학동창생들치고는 너무도 짧은 대화였고 딱딱한 상봉이였다.

어머니를 극력 피하려고 조급해하는 그를 보며 나는 어머니가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는것을 느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안타깝고 야속한 감정이 슴배여있었다. 아직은 내가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력사일화

유혹의 대가는…

어느 한 사람이 사헌부 라장노릇을 할 때였다.

그는 정갱이에 흠집이 끔찍했다. 뼈를 조박조박 이은 흔적이였다.

무슨 자리냐 물으니 곡절이 있었다. 현관이 죄인을 잡아오라고 해서 오라에 방망이를 차고 찾아가니 그 죄인이 마침 큰 부자여서 백금 30냥을 내놓으며 놓아달라고 했다.

백금 30냥이면 평생 한번도 쥐여보지 못한 큰 재산이라 언제 한번 공것을 탐해본적이 없었건만 금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견물생심이라더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로구나.

더 생각할새도 없이 금덩이는 주머니로 들어가고 손은 죄인을 이끌고 다리는 삼십륙계를 놓기 시작했다. 그까짓 라장질을 해서 뭘 해, 이 금이면 한동안 배불리 먹고 등덥게 살수 있으렷다. …

한편 현부에서는 현부대로 이 도망군을 잡으면 얻는것이 약차한지라 현관들과 라졸들을 풀어 샅샅이 뒤지는통에 끝내는 잡히고말았다.

모진 고문에 몸은 만신창이 되고 목숨마저 가물가물했다. 몇날 치료끝에 겨우 살아났지만 백금 30냥은 약값에 다 나가고 병은 깊어 폐인이 되고말았다.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악형과 깨여진 몸뿐이였다.

상처를 만지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마음이 발라야지 마음이 삐뚜루 된 담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얻는것이 없고 잃는것뿐이로구나.》…

세상엔 유혹이 많다. 권세, 황금, 미색…

물질생활을 하는 인간이라 재물의 유혹에 무관심할수는 없으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바르게 살수 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센 바람이 억센 풀을 알아본다.

어려운 때에야 사람의 진심을 알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무슨 일이든지 온갖 힘과 정열, 성의를 다 바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비록 겉으로 표현은 안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느끼고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